국토교통부	보도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: 2025. 4. 27.(일) 11:00 이후(4. 28.(월) 조간) / 배포 : 2025. 4. 25.(금)

유가족 현황 심층 조사로 맞춤 지원 실현한다

-「12·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조사」 착수… 실질적·지속가능 지원체계 마련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박상우)는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「12・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(공포 2개월 후 시행, 이하 "특별법")에 따라 **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**을 위하여 「**12·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조사**」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조사를 통해 여객기 사고 이후 유가족이 겪고 있는 **심리적, 법적, 경제적 어려운 상황**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, 조사 결과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**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**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.

□ 본 조사는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하여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온 **광주지방변호사회**가 **조사 업무를 담당**하면서, 법률적 관점에서 유가족 실태와 지원 필요사항도 함께 점검한다.

○ 참사 이후 유가족의 심리적 불안과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, 유가족 대표 기구인 **유가족협의회와 긴밀한 협력**을 통하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.

□ 현황 조사는 **유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**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**대면 및 비대면** 등 **다양한 방식**으로 이뤄지며,

○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**엄격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원칙**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**관계부처** 및 **유관기관**과 함께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심리상담, 의료치료, 생활지원 등 **유가족의 필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**할 방침이다.

○ 아울러, 아동, 장애인, 고령자 등 재난 **취약계층**에 대한 세심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고, 지속적인 심리 안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 지원의 **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정책을 구체화**하여 특별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할 계획이다.

□ **박정수** 12·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"유가족분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, **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**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"라며,

○ "유가족 여러분의 **적극적인 참여와 협조**를 부탁드린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12 · 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유가족지원과	책임자	과 장	최병남 (044-201-5468)
		담당자	사무관	최병철 (044-201-5464)
			주무관	정채림 (044-201-546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